

신식민지주의에서 신자유주의까지 -정치학자 이성형의 라틴아메리카

곽재성*

단독/경희대학교

Kwak, Jae-Sung (2013) "From Neocolonialism to Neoliberalism: Sung-Hyong Rhee's Latin American Politics"

ABSTRACT

This paper assesses the research of the late Dr. Sung-Hyong Rhee which he carried out as a political scientist. However, it is not within the scope of this paper to provide an assessment of the scientific significance of Rhee's work, focusing instead on highlighting his contributions to the debates that have significantly enhanced the robustness of the field of academic Latin American studies in Korea. First, Rhee's work started from a neo-colonial approach to the interrelationships among the different elements within Latin American social systems, a main research theme of his early career. Second, Rhee's efforts moved toward critical evaluation of the impact of neoliberalism on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Third, Rhee's work dealt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Latin America, one of the key determinants of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gion. Fourth, we give special attention to the way in which Rhee forecasted the future of Latin America. Last, but not least, Rhee's enthusiasm for the humanities and its influence on his work is emphasized, leading to his characterization as an 'inter-disciplinary' and 'reader -friendly' scholar.

Rhee was outstanding in that he enjoyed sharing his ideas and knowledge not only with his colleagues but also with common people. In this manner he cultivated a mass audience and made area studies accessible to the public, by carrying out a fundamental shift in the approach to his research objects. However, this transformational approach has made him subject to criticisms for Dr. Rhee's supposed weakness in theoretical approach and methodological maturity, although these would surely have been overcome in the years to come had he remained with us longer.

* Jae-Sung Kwak is a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Pan-Pacific International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Korea (Email: kwakwak@khu.ac.kr).

Key Words: Sung-Hyong Rhee, latin american studies, political economy, social elements, neoliberalism, U.S. and Latin America Relations
/ 이성형, 라틴아메리카지역연구, 정치경제, 사회구성체, 신자유주의, 미-라틴아메리카 관계

들어가며

이성형은 라틴아메리카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문학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식견을 자랑하는 학자다. 축구로 치면 골 넣는 골키퍼이거나 가끔은 수비에도 투입되는 최전방 공격수인 셈이다. 그러나 그는 어쩔 수 없는 정치학자다. 그가 남긴 수많은 저술 중에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여행기 『배를 타고 아바나를 떠날 때』(2001)는 쿠바에서 페루, 멕시코, 칠레 등 라틴아메리카 방방곡곡을 여행하며 현지의 문화, 역사, 그리고 사람사는 이야기를 전한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그 안에 내재된 정치경제적 현실을 잊지 않는다. 혹은 사족이 되더라도 간략한 역사 에피소드라도 친절하게 덧붙인다. 그래서 라틴아메리카 입문자들이 그의 여행기를 읽고나면 여행 자체보다 페루의 투팍 아마루, 칠레의 피노체트와 더 친숙해지게 된다. 이렇게 읽기 쉬운 글을 쓰는 목적도 어렵게만 느껴지는 정치 현실에 보다 손쉬운 접근을 유도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쿠바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닭 한 마리를 뺏속까지 뽑아 먹는 “봉쇄기의 닭고기 요리법”(pollo al bloqueo)을 위트있게 설명한 후, 왜 쿠바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미국의 對쿠바 봉쇄부터 쿠바의 개혁정책에 이르기까지 쿠바 현대사의 여정을 다양한 수순으로 이끈다. 반면 남미에서 가장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유산을 자랑하는 페루에서는 잉카를 위시한 역사 기행을 통해 불안정한 사회의 근원을 추적한다. 발품으로 보나 글의 수준으로 보나 가장 공을 들인 제3부 칠레 편에선 모네다(Monedra)궁 앞에서 칠레 현대사의 파노라마를 펼친다. 마침 그가 산티아고를 방문했을 때는 피노체트의 재판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그는 장렬한 죽음을 택한 아옌데 동상과 마주서서 1973년 9월 11일 쿠데타에 맞서 칠레 민중의 ‘대통령’ 아옌데가 국민들에게 보냈던 마지막 메시지를 되새겨 보는 것으로 20세기 비운의 정치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었다(Rhee 2001).

이성형은 여행하듯 즐기며 라틴아메리카를 연구했고, 연구를 빙자(?)해 이

지역을 주유했다. 그 소중한 경험을 말과 글로 기꺼이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았다. 탄탄한 지식과 풍부한 감성이 어우러진 그의 글은 한없이 깊은 반면, 잘 익은 막걸리 한 사발과 같아 술술 넘어가되 진한 여운을 남긴다. 인문학적 유희를 마다하지 않았던 정치학자의 글은 그렇게 대중 속에 깊이 파고들었으며 머나먼 라틴아메리카의 본질을 이해하고 싶은 이들에게 든든한 안내자 같은 하나의 등대였다. 지역 연구자 대부분이 돈도 안 되고 실적도 안 되는 저서 출판을 기피하며 아무도 읽지 않는 딱딱한 논문 ‘생산’에 주력할 때 그는 단독 저서만 10권을 출판했고, 거의 모든 책은 학계와 대중 모두에게 커다란 주목과 찬사를 받았다. 본의 아니게 모든 짐을 그 분의 좁은 어깨에 지워드린 점. 그것이 먼저 가신 선배이자 학문적 스승께 가장 부끄럽고 죄송스런 대목이다.

이 글은 정치학자로서 이성형이 창조했던 학문 세계의 흐름을 복기해보면서 현대사에 대한 그의 해석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정치경제에 대한 재 조망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사회구성체 논의를 통한 자본주의 본질 접근에서 시작하여,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비판 지식인으로서 라틴아메리카 사례를 어떻게 분석했는지,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의 국제관계에 있어선 어떤 해석을 하였는지, 마지막으로 한편으론 위협하지만 사회과학도로서 미래의 정치구도를 어떻게 예측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접근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 작업은 쉽지 않다. 즉 다학문적 융복합적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그의 학문 세계에서 정치, 정치학적 요소만 분리하여 접근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고, 또한 학과 제국주의 분과학문 중심주의 등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서슴지 않았던 이성형의 뜻을 다소 거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평소 입버릇처럼 하던 말은 “정치학자는 뭐든 할 수 있어요!”였기에. 무엇보다 학자로서 그의 글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초기의 정치사회학적 접근에서 두 가지 방향성, 즉, 경제정책과 대중성에 방점을 찍으며 변화한다. 그 이유는 첫째, 1990년대 이후 민영화와 개방화를 중심으로 하여 신자유주의 개혁이 본격적으로 라틴아메리카를 휩쓸게 됨에 따라 그의 관심도 경제정책과 개혁 이슈로 옮겨져 이에 대한 실증적 접근과 비판에 대부분의 노력을 할애하였다. 둘째,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이성형은 2000년 이후 대중적 글쓰기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다. 그가 출판한 대부분의 학술 저작물들이 순수 정치적 분석이나 행태주의적 분석과 거리가 있는 이유이다.

따라서 본 리뷰도 정치학자 이성형의 학문 세계를 다학문적으로 풀어나가기

로 한다. 우선 학자로 입문했을 때 주제였던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뒤이어 그의 주된 핵심 연구테마였던 신자유주의에 대한 시각을, 나아가 라틴아메리카의 대미관계를 어떻게 보았는지와 지역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해 미래전망을 즐겨했던 측면을 각각 되짚어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성형이 인문적 기초를 다진 사회과학자였음을 강조한다.

사회구성체 논의를 통한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한 접근

학자로서 이성형의 제1막은 정치사회학적 관점에서 신식민지주의 국가독점 자본주의(국독자)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국독자의 역사적 지위, 국독자 이행의 전사, 종속의 경향성, 군부파시즘, 민중민주주의 등의 쟁점을 재구성한 논문(「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주요쟁점에 대한 재검토」, 사회평론, 1991)은 그의 박사논문 및 저서 『라틴아메리카 자본주의 논쟁사』에 기초해 발표된 것이다. 이성형에 따르면 개량의 최종적인 목표가 “단순히 부분적인 이익을 얻어내고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변혁”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모든 개량이 유익한 것만은 아니고 “개량이 변혁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노동운동의 자립적 발전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전형적인 예로 이성형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볼 수 있는 포퓰리즘 협약에 기초한 ‘조합주의적 개량주의’(corporatist reformist)를 지목한다. 즉, 개혁을 시행하는 듯 하지만 특수 집단과 국가 간의 계약 관계를 공공히 하며 본질적 개혁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는 라틴아메리카의 사례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구성체 논의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토대를 한국사회에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구성체의 이해는 그의 주요 연구 영역이었던 라틴아메리카 민주주의와 정치경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매우 든든한 지적 인프라이며, 이성형의 기여는 한국의 지식사회와 라틴아메리카 학계에 지역연구의 토대로 현상을 넘어 본질의 중요성을 일찍이 각인시킨 것이라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초기에 그가 주로 천착했던 국가는 가장 처음 발을 디뎠던 멕시코이다.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국가와 달리 멕시코는 2차 대전 이후 오랜 동안 정치적 안정을 유지해왔지만 1970년 대 이후 어느 틈에 찾아온 제도혁명당(PRI)

독재 체제의 위기를 거쳐 통치불가능의 위기라는 불명예스런 별칭을 얻게 되었다. 멕시코 혁명의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발전모델의 위기, 정당성의 위기, 헤게모니의 위기”가 이 나라를 뒤흔들었고 그 근본 원인은 “정권의 안정성을 뒷받침했던 정치제도의 매개구조가 더 이상 민중 배제적인 경제모델과 맞지 않음으로 해서 생긴 협약 제제”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경제적 원인을 찾자면 “전후 수입대체산업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타협국가 체제는 더 이상 개방경제 하의 수출주도 경제가 강요하는 개혁 프로그램과는 기능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Rhee 1996, 6).

이와 같이 이성형은 멕시코를 자본주의 체제내의 개량이 지닌 이중성이 고착화된 전형적인 사례로 파악한다. 즉, 수많은 자유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민주화는 제2단계로 진입하는데 실패했고 오히려 ‘권위주의의 근대화’가 고착되었다. 그는 그 배경을 다음과 같은 “권력구조의 논리”에서 찾는다.

멕시코의 국가는 혁명이래 모든 권력을 자신의 손아귀로 장악했다. 국가는 시민사회의 조직들까지 여당을 통해 자신의 네트워크로 포섭했다. 여기서 국가에 대항한 시민사회의 이니셔티브나 자립화 노력은 미미했고, 오랫동안 지속된 경제위기나 정치위기에서도 적절하게 개입할 수 없었다(Rhee 1996, 40).

따라서 멕시코가 바뀌기 위해선 “전제군주의 그것을 능가”하는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고 헌정질서의 테두리로 가두어야” 하는데, “시민사회의 힘이 약하고 야당이 약하고 분열되어 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대통령 자신 밖에 없다. 따라서 “멕시코 정치의 딜레마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석하며, 개혁이 불가능한 멕시코 민주화의 역설을 명쾌하게 주장하였다(Rhee 1996, 41).

물론 이와 같은 권력과 권위주의의 고착화에 제동을 건 것은 신자유주의와 개방화이며, 그의 예상과는 다르게 세디요(Zedillo) 정권은 속수무책으로 권력을 내주고 말았다. 이때 이성형은 빠르게 변한 개방화 시대의 파고가 사회구성체 논의에 한계를 주었다고 인식했고, 이후 신자유주의의 외부요인에 대한 제도 및 구조 변화의 효과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또한 그의 관심 축도 사회구성체 또는 정치제도에서 정치경제의 영역으로 점차 다변화되기 시작한다. 어찌보면 제도주의 정치학과의 결별이며, 본격적인 지역연구자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라고도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정치경제

이성형이 학자로 활동하던 시기는 라틴아메리카에 있어 크나 큰 변혁의 정점기였다. 그가 석·박사 과정을 거치며 라틴아메리카에 입문했던 1980년대는 바야흐로 민주화와 외채위기의 시기였고, 학자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했던 1990년대는 신자유주의와 정치경제 개혁의 시기였다. 아르헨티나를 처음 방문하여 메넴(Menem) 통치시대 아르헨티나의 민영화와 개방의 파고를 몸소 체험한 것이 1992년이다. 그 다음 10년은 라틴아메리카가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고 중국의 산업화 등 글로벌 환경의 변화로 고도성장을 구가했던 시기였다. 따라서 이 시기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아마도 ‘신자유주의’일 것이다. 자연스럽게 그의 학술활동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치경제적 접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 결정판이 바로 『라틴아메리카, 영원한 위기의 정치경제』(2002)와 『대홍수,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20년의 경험』(2010)이라는 두 권의 저서이다. 물론 이 기간에 그는 수 없이 많은 논문과 학술발표문, 그리고 각종 언론 기고문을 통해 라틴아메리카의 시대상과 변화를 세상에 소개했지만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고 사실 그의 핵심 논지 대부분은 이 두 권의 저서에 녹아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성형은 신자유주의 개혁과 정치과 관계를 어떻게 풀었을까?

라틴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 논쟁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국가는 바로 아르헨티나이다. 다른 국가와는 달리 경제위기가 2000년대까지 반복되었고,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에 대한 날 선 대응을 통해 강한 반감을 드러낸 바 있고, 페론주의와 아르헨티나식 복지 정책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성형은 아르헨티나 문제에 있어 페론주의의 영향력 및 공과에 대해 매우 명쾌한 분석을 내놓았다. 페론주의는 정치적인 폐해를 낳았지만 페론이 시행한 공업화와 복지정책은 자체는 크게 잘못된 바가 없고, 오히려 페론시대에는 재정 건전성이 무난하게 확보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이후에 고질화된 재정적자의 원인은 페론주의와는 무관하고, 메넴시대를 정점으로 “국가에 기생하는 관성화된 지대추구 세력들의 재정 거덜내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90년대에 국부를 통해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려는 대기업(상당수가 다국적기업), 정부의 공채에 투기하는 내외 금융 자본, 지지부진한 행정개혁 등을 문제점의 원인으로 지목한다(Rhee 2002, 86).

그렇다고 해서 이성형이 페론을 찬양한 것은 아니다. 페론이 정당이나 제도를 존중하지 않았고, 노조의 조직화를 통한 대중동원을 통해 “아르헨티나 정치를 사인화(私人化)”한 점 등을 들어 제도의 안정을 크게 훼손시켰다며 페론시대의 나쁜 유산도 동시에 강조하여 아르헨티나 근대사에 대한 균형있는 접근을 시도했다. (Rhee 2002, 94-95) 특히, 사인화된 권위주의 정치 스타일이 오늘날 페론당의 구세대 지도자들에게까지 전승되고 있다고 비난한다. 지도자 개인 중심의 파벌체제하에서 뚜렷한 이념이나 정강 정책이 존재하지 않고 과두제와 민중의 원한 관계가 제도화된 오늘날의 정치현실에 페론이 책임질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결국 “페론의 잘못은 아르헨티나 사회에 내장된 적대감을 축소시키기는 커녕 민중의 원한을 자신의 육체에 육화한 하나의 정치적 상징으로 기능하게 하여 이를 세대를 넘겨 전승시킨 것에 있다”(Rhee 2002, 95).

아르헨티나의 정치경제가 신자유주의의 도입기를 지나는 동안 위기의 수렁에 더 깊이 빠지게 된 배경이 페론의 유산과 메넴시대의 책임성 결여, 즉 과거와 현재의 합작품이라고 한다면, 멕시코의 개혁 실패는 1980년대 이후 집권한 정권들의 거듭된 패착이 낳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성형에 따르면 멕시코는 원래 제법 모범적인 국가였다.

적어도 1960년대까지 성장이나 정치안정의 측면에서 멕시코는 제3세계 국가 중에서 모범을 보인 나라였다. 이 나라의 장기 집권은 ‘일당 헤게모니 체제’라고 부를 수 있지만 ‘완벽한 독재체제’라고 부르는 것은 좀 억지였다. 그저 소탈가다운 상상력에서 나온 과장된 언어일 뿐이었다. 그런데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민주주의 정치가들에 의해 경제가 거덜나기 시작하여 1982년에 ‘외채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Rhee 2002, 134-134).

이성형의 비판은 1982년 이후 미겔 텔 라 마드리드 (1982-1988), 카를로스 살리나스 (1988-1994), 에르네스토 세디요 (1994-2000) 등 신자유주의 기초의 경제개혁을 꾸준히 시행한 기술 관료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첫째, 개혁의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다는 점, 둘째, 국제금융권 및 미국과 과도하게 코드를 맞추었다는 점, 셋째, 민영화와 개방의 결과가 국민의 후생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경제학 교과서에 따르면 민영화와 개방, 그리고 외국인 투자의 증대는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국민 후생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나, 멕시코에선 전혀 그렇지 못했다. 5천 원짜리 전화카드는 시외통화 두 세 통화를 길게 하면

족하다. 휴대폰 한 통화에 2-3천원을 써야한다(Rhee 2002, 138). 그래서 텔멕스(Telmex)는 엄청난 수익을 남기며 멕시코 시장을 넘어 라틴아메리카 각국으로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사주인 카를로스 슬림(Carlos Slim)은 2010년 이래 세계 최고 갑부 자리를 놓친 적이 없다. 1990년대의 마구잡이 민영화는 교통 인프라 부문에서도 나타났는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로 악명이 높은 멕시코의 민자 고속도로에는 일반 차량이 거의 다니지 않은 반면, 구 도로는 여전히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지금부터 십 수 년 전에도 멕시코시티(Mexico D.F.)에서 3시간 거리의 아카풀코(Acapulco)까지의 편도 통행요금은 무려 70달러에 달했다. 급기야 민자도로의 수익성 악화로 운영사가 파산지경에 이르자 정부는 20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시행한다(Baltimore Sun 1996).

개방도 마찬가지이다. 내수산업의 경쟁력은 관세 비관세 장벽 등 대개 높은 문턱으로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개방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멕시코의 경우 미처 국내 산업이 개방화의 파고에 대비할 틈도 없이 전면적으로 그것도 매우 신속하게 개방을 시행했기 때문에 “기술력이나 우수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멕시코는 다국적 기업의 생산 기지로 전락하기에 이르렀다. 유일하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부문은 북부의 마킬라도라 지역의 대미 수출용 임가공 단지 정도이다. 그나마도 오늘날에는 기술이 고도화되어 핵심 부품과 소재는 전면 아시아에서 수입한 후 저렴한 노동력을 통해 조립하는 방식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성형의 접근은 기본의 비판자들과는 구분된다. 우선 그는 제도나 이론에 대한 맹목적인 비판이나 묻지마 식 반미를 경계한다. 사실 그의 글에서 하이예크나 프리드만의 이론에 대한 언급도 자주 보이지 않는다. 대신 그의 날선 비판은 신자유주의라는 새 술을 라틴아메리카의 낡은 관습과 구세대 엘리트라는 현 부대에 담은 데 정조준되어 있다. 그는 신자유주의 자체 보다는 각국에 드리워진 후진적 코포라티즘과 사리사욕에 눈이 먼 정치인, 그리고 매판 자본에 대한 지적 판관을 자청했다.

이성형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경험적 사례에 관심을 갖고, 전력산업, 가스산업, 노동정책, 반부패정책 등과 같은 사례접근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본질에 접근한다. 특히 자원, 에너지 부문에 대한 현실적 관심이 높아지자 민영화 20년의 결과로서 집중도의 문제점, 공급부족으로 인한 가격의 상승, 독과점화와 외국자본의 지배 및 국부유출 등의 문제를

진적하는 업적을 이룩했다(Rhee 2010). 시공을 꿰뚫는 지식과 탄탄한 이론적 기반에 입각한 그의 관심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연구 대상을 바꾸어가며 진화하게 된다. 에너지 부문의 경우 시작한 셈이고 연구 대상국도 주요 국가에서 더 확대되어 갔다.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언젠가는 남극의 생태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도 능히 해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이 프랑스의 실증주의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음은 물론이다. 그가 마지막 낭만주의자이자 실증주의로 향하는 현대성의 문을 열었던 보들레르에 심취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쉽게 풀어 이야기하자면 그는 디테일에 강한 학자다.

문제는 이러한 실증주의적 경향이 그가 정치적 현상을 조망함에 있어 경제정책과 현상(fact) 위주의 서술이 주를 이루게 했다는 점이다. 룰라 정부의 8년을 되돌아보고 후세피의 미래를 예측하는 목적으로 쓰인 “룰라 정부의 유산과 후세피 정부의 전망”(2009)에서는 룰라의 성공요인을 공기업 민영화, 국제경제 환경, 동반성장 정책과 재정투융자 정책 등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였고, 향후의 정국 전망도 주로 경제적 과제 위주로 보았다. 룰라의 리더십이나 정당, 지역주의, 정치과정 등 브라질 정치의 근본적인 역동성에 대해선 오히려 소홀히 다루어진 경향이 없지 않기 때문에 다소 아쉬움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이런 비판에 대해 이성형의 답은 한결 같았다. ‘본질이 중요하고, 그것은 먹고사는 문제와 다르지 않으며, 결국엔 라틴아메리카의 구조를 뿌리째 흔들었던 신자유주의’라고.

신에겐 너무 멀고 미국에는 너무 가까운 라틴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에 있어 미국은 어떤 의미일까? 이 지역 전공자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는 주제이다. 특히 신식민주의 사회구성체 논쟁에서부터 신자유주의의 공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 이성형에게 미국은 어떤 존재였을까? 그의 눈으로 본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에 있어 축복일까 재앙일까? 또한 미국은 라틴아메리카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일까?

미국과 라틴아메리카의 관계가 영향력 있는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관계임은 부인할 수 없다. 우선 이 지역은 미국에 바로 인접한 지리적 위치 탓에 일단 뒷마당(backyard)으로 인식된다. 라틴아메리카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절대적인

존재했지만, 미국은 역사적으로 라틴아메리카를 한 번도 심각한 외교 파트너로 여겨본 적이 없다. 그렇게 시끄러웠던 1962년 쿠바 미사일 사태도 표면적으로 마이애미(Miami)의 앞바다에서 벌어진 국가안보상의 중대사이지만 사실은 동서냉전의 프레임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최근들어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로 인해 미국의 헤게모니가 예전만 못해지자 라틴아메리카와의 관계도 다시 규정해보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그 흐름을 이성형의 분석을 통해 짚어보도록 한다.

우선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일단 예전 같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선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다. 특히 이성형은 미국의 역할 변화, 혹은 축소, 심지어는 미국이 오랜 기간 역내에서 누렸던 “프리미엄의 붕괴”에 주목한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라틴아메리카의 무역과 투자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진 대신 그 빈 공간을 중국, 한국 등 아시아의 신흥 경제권이 채우고 있다. 둘째, 경제위기를 거치는 동안 IMF의 채권자 카르텔이 붕괴하여 이는 결국 미국의 영향력 감소로 이어졌다. 셋째, 베네수엘라 또는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라틴아메리카의 결속력이 증대되어 상대적으로 미국의 영향이 줄어들었다(Rhee 2010, 75).

반면에 그는 미국에게 있어 라틴아메리카가 여전히 중요하고 무시하기 어려운 존재임을 강조하며, 동시에 이 지역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구성한다. 첫째 미국에게 라틴아메리카는 여전히 “자신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고 비축할 수 있는 뒤뜰”로서 의미가 있다. 둘째, “초국적 쟁점인 에너지 안보, 지구온난화, 오염 등과 같은 환경문제, 범죄, 마약, 공공보건 등의 문제에서 라틴아메리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셋째, 미주 내에 이주와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강화되어, “마약과 국제범죄조직, 이민과 송금문제, 이민법 개정”은 미국의 국내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쟁점으로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넷째,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브라질의 반(半) 제국주의 행태”도 미국으로서 부담이다(Rhee 2010, 75). 마지막 브라질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담론, 특히 마약, 범죄, 환경, 이주 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라틴아메리카에 발목을 잡힌 것이 원인이다. 또한 개방화와 통합의 바람을 타고 날로 늘어나고 있는 미국 내의 라티노 인구도 한 몫 했다고 볼 수 있다. 미주 대륙 내의 지배-종속 프레임이 서서히 해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쿠바계 이민 2세가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것도 이런 트렌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닐런지.

또한 역내 통합은 국제관계의 해묵은 주제이지만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와 국제관계에 있어 중요한 화두이다. 특히 개방화시대의 경제통합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영향력 있는 아젠다로 성장했다. 문제는 어떤 통합이냐는 것이다. 이성형은 최근의 남미연합과 남미은행 창설 움직임을 묵도하며 라틴아메리카 통합의 한계를 정확히 읽어내려갔다. 첫째, 오랜동안 쌓여온 국가 간 갈등이 문제다. 브라질이 뭘 하려고하면 아르헨티나가 시비를 걸고, 콜롬비아와 에콰도르는 함께 있으면 필히 싸울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국가 간 상이한 비전과 이해관계가 문제다. 예를 들면, 미주 통합의 이념을 앞세워 라틴아메리카의 대동단결을 외치는 베네수엘라와, 아시아와의 경제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칠레의 이해관계가 같을 수는 없다, 셋째, 유럽과는 차원이 다른 빈부격차가 통합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Rhee 2009, 433-435). 특히 지역 간 경제력 차이를 무시한 경제통합의 역기능이 이미 유럽에서의 극명하게 표출된 지금, 유사한 방식의 통합은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태평양 연합(Pacific Alliance)과 같이 소수가 연합한 기능 중심의 의기 투합형 통합이 더 현실적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확한 현실진단에 비해 이론적 접근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성형이 관심을 보였던 수많은 주제 중에서 특히 대미관계를 비롯한 국제관계 분야가 그러한데,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가 아닐까 한다.

일찍이 국가독점자본주의 비판에서 시작한 그의 좌파적 해석이 신식민주의 프레임으로 발전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라틴아메리카는 더 이상 미국의 관심 지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연구대상이 그의 이론적 기반과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수준에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행보를 “미국의 힘을 두려워하면서도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내며), 메르코수르, 남미국가공동체,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공동체, 알바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자율성과 자결권의 공간을 확대하고자”(Rhee 2010, 75)한다고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그가 조금이라도 현실주의적 틀을 적용했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국제적으로 거의 주목받지 못했고, 일부는 해프닝으로까지 치부했던 남미국가공동체나 알바 등에 굳이 큰 의미를 두려웠던 것은 다름 아닌 학자적 미련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처럼 어느 순간부터 이성형은 학문적 깊이를 더하기 보다는 여행기, 언론

기고와 연구용역 등의 작업에 활발히 참여하면서 지역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작업을 진행했다. 『배를 타고 아바나를 떠날 때』(2001) 여행기 발간과 한겨레신문에 1년간 연재한 ‘세계사 뒤집어보기’(2003)시리즈 등을 필두로 지역연구의 대중화 작업은 본격화되었고, 학술활동도 이론적 분석보다는 현상을 기반으로 한 대중적 글쓰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글은 다 학문적, 서술적으로 변모해갔고, 정치학계의 주류로 부상한 계량적 접근 방법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상 학자인 그로서는 언젠가 이 모든 지식과 담론을 정리하여 이론적으로 집대성 해보려는 뜻과 욕심이 당연히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이성형은 물 흐르듯 살았지만, 현실의 파고를 적절히 넘을 줄 알았고 각종 프로젝트의 기획도 능했기에, 인생 후반기에 정치학자의 자리에 돌아와 좌도 우도 아닌 그 만의 이론적 틀로 다시금 라틴아메리카를 조망하는 역작을 내놓았을 것이다. 네 차례의 항해를 통해 중미와 카리브 이곳저곳에 도착했지만 죽는 순간까지 그 땅이 인도임을 굳게 믿었던 콜롬버스에 비해 이성형은 그가 가고 있는 곳은 정확히 알고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돌아오는 길에 암초를 만난 것이다. 그의 요절이 가장 아쉬운 이유이다.

미래를 바라보는 해안

이성형은 콜롬비아의 마약 문제를 ‘소비자 미국’과 ‘생산자 콜롬비아’의 프레임으로 미국의 대 마약 전쟁이 콜롬비아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심도 깊게 분석 하였다. 사실 당시에 유행했던 패러다임은 마약퇴치에 있어 생산자 측 정책은 거의 소용이 없고 미국의 보다 강력한 국내소비 통제 또는 (조심스런 목소리로) 마약 합법화만이 효과를 볼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그는 콜롬비아에서도 마약 생산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점도 동등하게 강조하였다. 특히 마약 전쟁 수행에 있어 “대상에 대한 접근은 보다 세밀해야 하고 정치적인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 후일 콜롬비아 정부가 마치 그의 견해를 수용한 듯하다(Rhee 2005, 178-179). 이 글이 쓰여진지 10년이 흐른 지금 콜롬비아는 최대 코카인 왕국이라는 오명과 게릴라와 마피아가 난무했던 정치 사회적 불안에서 동시에 벗어나 년 5-6%의 성장을 안정적으로 구가하는 라틴아메리카의 모범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는 마약에 대한 통합적

최근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데 전문가들의 견해가 대개 일치한다(<http://DrugWarFacts.org>). 특히 2002년 집권한 우리베(Uribe)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안정적 거버넌스를 확립한 결과 “영토 통제력을 늘리기 위한 군과 경찰의 노력이 코카인의 불법재배를 줄이는데 성공”했고 특히 “반군소탕 작전이 전개되면서 마약제조나 밀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2011).

1990년대 다양한 위기를 맞이했던 멕시코 제도혁명당(PRI)의 앞날을 예측하는 대목에서도 이성형은 탁월한 안목을 보여주었다. 그는 멕시코의 제도혁명당이 세계 어느 정당보다 권력을 보존하는 능력이 우수하고 볼셰비키당보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지만 “제도혁명당에게도 권력의 황혼은 다가올 것이다”라고 분명히 경고한다. 그 이유는 1990년대의 세디요를 비롯한 대통령 -즉 멕시코 정치를 민주화하고 개혁하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권력자-에게 별다른 복안이 없었다는 점이다. 정치민주화와 개혁안을 실시한다면 막강한 보수파에 막혀 좌초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당 내분, 대중적 이미지의 추락, 당내 민주화 압력에 지속적으로 시달일 것이다. 이와 같은 딜레마는 실제 2000년 대선에서 표출되어 반대당인 국민행동당(PAN)의 폭스(Vicente Fox)가 당선되어, 제도혁명당의 71년 독재를 종식시키기에 이르렀다. 이성형은 일찍이 1996년에 발표된 논문 “멕시코 정치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현 단계의 성격”을 통해 중기적으로 멕시코의 정치체제가 바뀔 두 가지 변수를 지적하였는데, 첫째, 점차 정치화하기 시작한 시민들의 각성을 통해 허약한 야당에 대한 지지가 높아질 가능성, 둘째, 북부 지방에서 가시화되기 시작한 야당 국민행동당의 약진이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4년 후 폭스가 당선되었음은 물론이다. 2000년 멕시코 대선 후 필자는 이형성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속수무책으로 권력을 내주었던 세디요 대통령의 ‘무능’에 대해 몇 마디 나누었던 기억이 난다. 물론 일각에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정착 시켰다는 평가를 하지만 멕시코 정치의 특성상 그것은 멕시코 정치사회 구조의 변화-즉, 신자유주의로 인한-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권력관리에 실패한 것에 불과했다는 게 요지였다.

마치며, 바보야! 핵심은 인문학이야.

지금까지 정치학자 이성형의 20여년 족적을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

았다. 그가 후학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사회과학자로서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수행에 있어 ‘현실’을 수용하라는 것이다. 정치제도와 사회구성체로 설명이 불가능해진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를 통한 접근을 즐겼고, 단순히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논리를 지양하고 실증적, 학제적인 방법을 통해 객관적으로 현상을 조망하려 노력했다. 또한 정치학자에서 지역학자로 외연을 넓혀감에 있어 일반 대중이 보다 쉽게 라틴아메리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순탄치 않았던 그의 인생 역정이 알게 모르게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으리라 미루어 짐작해 본다.

10여년 전 대학원생 엠티자리를 함께 했었다. 그 자리에서 밤새도록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주제는 다름이 아닌 인문학적 소양이다. 이야기를 나누었다기보다는 무섭게 질책하는 자리였다. 문학과 철학, 그리고 세계사에 대한 이해 없이 사회과학을 논할 수 없고, 인문학은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던 반드시 갖추어야 할 소양이라고 강조하며, 이 중 몇 명이나 『호밀밭의 파수꾼』이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읽어 보았느냐는 이성형의 다그침에 학생들 모두 고개를 숙였던 기억이 난다.

이성형과 몇 차례 국내외 출장을 동행하면서 가까이서 본 그의 버릇이 있다. 우선 그는 매우 일찍 일어난다. 식전에 독서를 즐기며, 속독에 매우 능하다. 가급적이면 소설이나 인문학 서적을 많이 탐독한다. 영어, 스페인어뿐만 아니라 일어와 불어에도 능하며, 아시아, 미국, 유럽 등 다양한 세계의 인문-사회과학적 그리고 미학적 예술적 지식에도 능통하다. 근본적으로 그는 사회과학의 맹점일 수 있는 제도주의에 함몰됨을 경계하며 살아왔다. 즉, 정치와 정책의 근본은 사회와 역사이고, 근저에는 그 사회의 철학과 사상과 문화적 바탕이 흐르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은 문학이라는 것을 일찍이 깨달은 것이다. 생애 첫 브라질 출장을 앞두고 애써 포르투갈어 과외를 받을 정도로 사물에 대한 접근에 있어 기본을 중요시 한다. 어부에 비교하자면 바닥부터 철저하게 훑어가는 저인망 어선의 선장인 셈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산 텔모(San Telmo)의 탱고바에서 스스로 마이크를 잡고 보들레르의 시를 불어로 줄줄이 읊어 좌중에게 신선한 감동을 안겨주었을 정도로 인문학에 대한 그의 애정과 탐닉은 라틴아메리카를 넘어 전 세계로 향한다. 특히 대중적 글쓰기의 수많은 사례에서 보았듯이 인문학은 사회과학자 이성형을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소중한 지적 인프라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문화적 해석만을 신봉한 것은 아니다. 멕시코의 부패문제를 해부한 「멕시코의 정치적 부패: 원인, 결과, 합의」(2007)에서 그는 멕시코 부패의 역사적 기원을 강조하긴 했지만 “문화론적 설명은 동일한 과거사와 이베리아적 유산을 지닌 칠레에서는 정치적 부패가 덜한 반면, 멕시코에서는 매우 심한 까닭을 설명하지 못한다”며 비판하였고, 멕시코 혁명 이후 고착화된 “국가와 사회의 구조적 불균형”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였다(Rhee 2007, 34-35). 그는 문화·역사·사회·제도 등을 넘나들며 ‘왜?’라는 연구과제에 접근함에 있어 되도록 다면적이고 포괄적인 답을 제시하려 노력했다.

이 글이 인간 이성형에 대한 회고를 하는 목적이 아니지만 그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에피소드를 하나 더 남기며 마치고자 한다. 1997년 함께 칠레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산티아고에 도착한 때가 마침 일요일 저녁이라 마땅히 환전할 곳이 없어 어둑어둑한 저녁에 사설 환전상이 즐비한 시내를 우선 찾았다. 예전에 거주했을 때 필자가 자주 찾았던 거리이기에 고향에 온 기분으로 매우 자신 있게 안내를 했다. 이게 화근이었다. 우리를 반갑게 맞은 후덕한 모습의 사내는 전자계산기를 들이밀며 아주 좋은 환율을 제시하였고, 그 좋은 환율 덕분에 우리는 원래 계획보다 200불을 더 얻어 총 300불을 바꾸자고 했다. 아무 의심 없이 그 돈을 맡겼다. 그런데 5미터 앞에 있는 환전상 안으로 들어간 그는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불길한 생각에 환전상으로 가보니 입구는 굳게 닫혀있고, 바로 옆에 위층으로 통하는 자그마한 문이 있지 않은가! 아뵘싸. 그대로 돈을 들고 사라진 거였다. 손해보더라도 얌전하게 호텔에서 환전했으면 좋았을 것을 좀 안다고 설치고 다닌 게 화근이었다. 그 때 스스로와 필자를 위로한다고 이성형이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

“곽 선생, 신자유주의로 일자리를 잃어 여기까지 왔을 불쌍한 페루 이민자 도와주었다고 칩시다.”

차가운 지성에 따뜻한 감성! 지역연구의 시작은 그 지역에 대한 사랑임을 일깨워준 학자 이성형을 그리는 이 진부한 표현이 가슴 먹먹하게 사무친다.

참고문헌

- Rhee, Sung-Hyong(1991), "Sinsikminji Gukgadokjeomjabonjueuironueui juyojaeng jeomedaehan jaegemto," *Saboebyeongron*(Social Review), Vol. 91, No. 7, pp. 328-342.
- _____ (1992a), "Argentina Woechaewigiwa Minjuhwa(Debt Crisis and Democratization in Argentine)," *Gukjejeongchinonchong*(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32, No. 1, pp. 161-182.
- _____ (1996), "Mexico Jeongchichejeui Gujojeok Wigiwa Hyundangyeuei Seonggyeok," *Latin America Yeongu*(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9, No. 1, pp. 5-50.
- _____ (2002), *Latin America. Yeongwonban Wigiuei Jeongchi Kyeongje*(Latin America. Politics and Economics of the Perpetual Crisis), Seoul: Yuksabipyongsa.
- _____ (2005), "Migukeui DaeColombia Mayakjeonjaeng: Hyeonsiljueui Woegyo Nonrieui Munjejeom," *Latin America Yeongu*(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18, No. 4, pp. 157-191.
- _____ (2006), "Chukgueui Segyehwa, Grigo Jeongcheseonguei Jeongchi," *Iberoamerica Yeongu*(Revista Iberoamericana), Vol. 17, pp. 91-114.
- _____ (2007), "Mexicoeui Jeongchijeok Bupae: Wonin, Gyeolgwa, Hameui," *Latin America Yeongu*(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20, No. 3, pp. 25-59.
- _____ (2009a), *Daehongsu*(A Great Flood), Seoul: Greenbee.
- _____ (2010), "Obama Jeongbuwa Latin America: Seonrinoegyoeseo Himeuioegyoro," *Latin America Yeongu*(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23, No. 2, pp. 43-82.
- _____ (2011), "Brazil Rula Jeongbueui Yusangua Joseph Jeongbueui Jeonmang," *Iberoamerica Yeongu*(Revista Iberoamericana), Vol. 22, No. 1, pp. 149-182.
- "Cocaine Wangguk Colombia Mayaktoechi Seonggong," *Yeonhap News*, 7 May, 2011,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1/05/07/0607000000AKR20110507000600087.HTML>
- "Colombian Drug Control Policies and Data," <http://www.drugwarfacts.org/cms/chapter/Colombia#sthash.sOJZ4MM5.dpbs>
- "Mexico's Long, Lonesome Highway Privatization," *More Sun*, June 29, 1996, http://articles.baltimoresun.com/1996-06-29/news/1996181018_1_mexico-city-outskirts-of-mexico-private-companies